

「泰西文藝新報」의 詩史的 位相

— 無名詩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김 은 철

〈目 次〉

- | | |
|----------------|-------------------------|
| I. 서론 | Ⅲ-2. 海夢의 改作詩 「新春香歌」의 경우 |
| Ⅱ. 작품의 수록양상 | Ⅲ-3. 身邊詩의 詩史的 位相 |
| Ⅲ. 작품의 移行期的 性格 | Ⅲ-4. 李一과 吟孤生의 경우 |
| Ⅲ-1. 疑似詩의 경우 | Ⅳ. 결론 |

I. 서 론

「태서문예신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¹⁾ 그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8년 9월 26일에 발행인 尹致昊, 주간겸 편집인 張斗燾에 의해 창간된 「태서문예신보」는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된 주간지이며²⁾ 1919년 2월 16일까지 21주 동안 16호를 발행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사정으로는 좋은 성적'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간지는 창간사에서 밝힌대로 '태서의 유명한 소설 시도 산문 가곡 음악 미술 각본 등 일체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대가의 붓으로 즉접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해야 발행할 목적'⁴⁾으로 창간되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술 전반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문학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시 중심으로 편집, 간행되었다. 또한, 과연 창간사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본

- 1) 태서문예신보에 관한 주요 논의로는 김용직, 「태서문예신보연구」, 단국대 국문학논집 제1집, 1967.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강남주, 수용의 시론 현대문학, 1986. 등이 있다.
- 2) 태서문예신보를 신문이 아니라 잡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 3) 정한모, 앞의 책, p.243.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8호, 15호는 결절이다.
- 4) <태서문예신보>제 1면, 1918.9.26.

문에서 충실하게 번역하였는지 당시의 문학대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태서문예신보」가 한국근대문학에 미친 공헌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주로 요약하자면 한국근대의 본격적인 문예지로서 그 중 특히 시쪽에 공헌한 바가 크며 서구의 문예작품과 이론, 구체적으로는 상징주의 시와 시론을 소개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문학의 안목을 넓혀주었다는 점, 김억과 황석우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시와 근대시론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소년」과 「청춘」이 문학지이기 보다는 지리·역사를 중심으로 한 교양지였음에 비추어 「태서문예신보」는 교양면보다 문학면이 현저하게 우세하고 특히 서구의 이론과 작품을 대거 소개함으로써 당대의 문인과 독자들의 시의식을 양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억과 황석우에 의해서 본격적인 근대시의 출발을 보게 됨으로써 이 문예지의 문학사적 위치는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그러나 창작시의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김억과 황석우에게만 집중되어 왔고 그 외의 작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실혹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억과 황석우의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시인들의 작품은 질적으로 그 이하의 것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태서문예신보」에는 ‘근대적’이고 ‘우수한’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소위 무명시인들의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고 이들 작품들은 한국근대시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의 양상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무명시인들의 작품을 재고찰함으로써 「태서문예신보」의 성격은 물론 이행기의 시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작품의 수록양상

6) 태서문예신보의 무명시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강남주, 「태서문예신보의 무명시인고」,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2, 1979.가 있다. 여기에서 이들 무명시인들의 작품의 과도기적 역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태서문예신보」에 실린 각 시인별 창작시의 수록 양상은 金億 12편, 催永澤 6편, 黃錫禹 5편, 張斗澈 4편, 李一 3편, 白大鎭 2편, 開城吟孤生 2편, 李星泰 1편, 具聖書 1편, 溪園 1편, 李秉斗 1편, 湖南錦城半狂生 1편, 武卿生 1편, 三田生 1편, 金振聲 1편 등이다. 창작시는 15명이 42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중 김억과 황석우를 제외한 13명이 무명시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작품 수는 총 25편에 이르고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호	별	작	가	제	목
1	호	H.M	生	新春香歌一	(奇愚의 卷)
2	호	H.M	生	新春香歌二	(想思의 卷)
4	호	백대진		뉘웃춤	(산문시)
5	호	해몽생		외-외-이다지도?	(산문시)
6	호	해몽생		우리아버지의 선물	(산문시)
7	호	이 일		海岸의 孤獨	
10	호	백대진 이 일 이 일 최영택 구성서		어진 안희 나의 노래 孤獨의 歌 누이의 위원 감사한 문예신보	
12	호	최영택 이성태 이병두		아들에게 作別 無常은 苦樂에서 解脱하라	
13	호	湖南錦城半狂生 武卿生		祝泰西文藝新報社發展 祝	
14	호	三田生		멀리간 벗에게	
16	호	김진성 최영택 溪園 開城吟孤生		새겨울 떠나면서 이러나는 불 잠차고 저리로 나의 시님 쓰어라! 怠學生!	

이들 13명의 시인들은 작품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문학사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일반독자들로서 비전문

적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무명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백대진이나 이 일과 같이 「태서문예신보」 이전에 이미 문학에 관한 이론이라든지 기타 산문을 발표한 사람도 있으나 이들의 작품이 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한 시대나 한 사조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뒷날 그 작품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지 못한 데에도 그 이유는 있을 수 있다.’⁷⁾ 특히 백대진의 경우 「태서문예신보」 이전에도 이미 몇 편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어서⁸⁾ 이 분야에서는 김억보다 앞서 있었지만 창작적인 재능은 그의 이론소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이들 장두철이나 백대진, 최영택 등의 문학사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서문예신보」의 중견시인이라고 할 만하다. 즉 이들은 김억이나 황석우의 시의식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일반독자들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근대시로 가는 이행기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이들도 무명시인의 범주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무명시인들이 발표한 작품은 앞의 표와 같다.

앞에서 볼 때 무명시인들의 작품은 同誌 10호에서부터 급작스럽게 늘고 있는데 이는 9호부터 作品添削部란을 개시한데서 연유한다. 「태서문예신보」 9호(1918.11.30) 7면에는 “作品添削部開始”라고 하여

…此의 目的을 執하고 時代의 要求에 應해야 이러한 本報는 數百年을 繼續해야 進歩發展해야 거의 絶頂에 이른 유럽(歐羅巴)의 文藝를 選又擇해야 輸入함과 同時에 我的 文藝를 創作코져함이라. 이를 爲해야 無限한 싹을 가진 新藝術家를 助長할 必要가 크며 또한 여러 方面으로 부터 請求가 數多함으로 今般에 特히 愛讀諸氏를 爲해야 「作品添削部」를 設하고 各大家의 周致한 添削 批評, 注意를 與하겠스오니…”

7) 강남주, 수용의 시론, p.125.

8) 백대진, 「現代朝鮮에 「自然主義文學」을 提唱함」, 新文界, 29호, 1915.12.

「新年劈頭에 人生主義派文學者의 躍出함을 期待함」, 新文界 30호, 1916.1.

「文學에 對한 新研究」, 新文界 32호, 1916.3

9) <태서문예신보> 제 9호, 제 7면, 1918.11.30.

라고 하여 이란의 설치목적을 밝히고 독자들의 투고를 받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서구의 이론과 작품을 선택하여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문예를 창작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진들을 등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편이 당시에 이미 독자들의 투고요청이 많았다는 것도 위 예문에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후반부로 가면서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 신문은 간행되었고 거기에서 일정 수준의 의도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여진다. 즉 문학이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독자들에게 의식시킨 것과 병행하여 서구의 신진 문예를 수입하여 우리 문예를 창작코자 한 본지의 의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문예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강남주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지의 feedback효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¹⁰⁾은 매우 적절한 견해라 하겠다.

Ⅲ. 작품의 移行期的 性格

「태서문예신보」의 무명시인들의 작품은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개화기시가에서 김억과 황석우로 대표되는 근대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통상의 개화기 문학의 시대구분은 넓게는 1860년대에서 1910년대 말 또는 개항에서 191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보거나, 좁게는 갑오경장에서 한일합방까지 보고 있다.¹¹⁾ 또한 근대시의 기점은 대체적으로 1918년 「태서문예신보」의 출현으로 규정되고 있다.¹²⁾ 이 때 근대시란 단지 시대적 개념만이 아니라 가치개념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개적 운율의 자각에 입각한 자유시여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리리시즘에 입각하여 自我의 정서에 바탕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서정시의 본질을 여하히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며 특히 한국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

10) 강남주, 앞의 책 참조.

11) 개화기 문학의 시대구분으로는 ① 1860~1910년대 말(민병수, 조동일, 윤명구) ② 개항(1876)~1910년대 말(김용직), ③ 갑오경장~기미운동(전광용), ④ <독립신문>(1896)~<태서문예신보>(정한모, 김윤식)등의 설이 있다.

12) 김영철, 한국개화기시가의 장르연구, 학문사, 1987. p.12 참조.

화기 시가의 양상에서 얼마나 탈피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개화기의 시가는 소위 傳統素의 계승과 外來素의 수용이라는 갈등 속에서 장르와 율격이 모색되고 있었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화와 척사라는 당대의 사상조류 속에서 혼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개화기의 시가양식을 창가, 신체시 등의 이분법으로 보든¹³⁾ 가사, 창가, 신체시의 삼분법¹⁴⁾으로 보든 또는 다원적으로 보든 이들 시가양식들이 내용이나 형식 양면에 있어서 당대의 첨예한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들 개화기시가들은 歌, 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문이 우세하며 내용적으로는 개적 정서보다는 집단정서가, 시선이 자기자신을 낮추고 자신에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사회적인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시라고 할 때 이 개화기 시가의 속성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척도하는 것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태서문예신부」가 돌발적으로 근대시를 생산한 것이 아니며 거기에 수록된 모든 시가 근대시는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개화기시에서 근대시로 이어지는 이행기에 있어서의 시문학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태서문예신보」에 수록된 무명시인들의 작품은 작가의 계층별로 볼 때 순수아마추어인 일반독자일수록 시의식 수준이 낮아서 특히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개화기 시가와 근접해 있고 해몽, 최영택, 백대진 같은 중견작가일수록 더욱 근대시에 접근해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시의 모양만 빌어서 어색하게 흉내를 낸 擬似詩도 있고 근대시에 버금가는 것도 있어서 이행기에 있어서의 모든 양식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형식적으로는 정형적인 창가류에서 자유시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개화기 시가에서 지적되던 교술적 측면이 거의 거세된 상태에서 서정성, 주관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근대시로 진일보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3)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임화 조선신문학사, 백철 국문학전사,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등의 견해.

14) 조지훈 한국현대시문학사,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송민호 한국시가문학사 등의 견해.

이들 무명시인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Ⅲ - 1. 疑似詩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거의가 독자투고란에 있는 것들로서 개화기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가사체, 창가적인 노래체, 시 형태를 띤 雜記 등이며 정형성이 강하고 시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서의 '감사한 문예신보'(10호), 호남금성반광생의 '축태서문에신보사발전'(13호, 「독자의 소리」란에 수록), 무경생의 '축'(13호, 「독자의 소리란」에 수록) 김진성의 '새겨울'(16호, 잡문 「감상나는대로」후반에 수록) 개성음고생의 '愈學生!'(16호, 「동서시문집」란에 수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성서의 '감사한 문예신보'는 전체가 10연으로서 각연은 4행씩으로 고정되어 있고 각 행은 4.4조로서 엄격한 음수율이 지켜지고 있다.

압언덕과 뒤동산에
 시노랏튼 마른잔디
 검고마른 풀과 나무
 쫄々하고 덕막타가 (1연)

반가웁고 다정스런
 슬々부는 봄바람에
 죽은듯한 잔디들은
 파릇々々 바늘모양 (2연)

검은풀과 마른나무
 푸릇々々 시냇나서
 한님두님 번성하여
 님과가지 피어나서 (3연)

반도강산 문예계단
 싯노랏코 싯짜막케
 말너져서 황망트니

8 嶺南語文學(第17集)

타서제국 문명바람 (5연)

반도우에 부러움의
우리결망 새트리고
시용력이 나게하며
선각선성 열성으로 (6연)¹⁵⁾

— 구성서, 「감사한 문예신보」—

이 작품은 「태서문예신보」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의 것으로 기계적 음수율에 의존하고 있지만 겨울의 검고 마른 풀과 나무를 태서문예신보 이전의 우리문단에 비유하고 봄이 되어 일이 나고 번성하는 것을 「태서문예신보」의 발간에 비유하여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성서의 '감사한 문예신보'는 의사시로 분류한 作品群에서는 비교적 그 시의식수준이 높아 보인다.

老一無窮花동산에 曙光이빛쳐
비달의글월의 움이도닷네
우리의시음이 이제로브터
봄빛의溫氣를 받게되도다¹⁶⁾ (이하 2,3연 생략)

— 호남금성반광생, 「축태서문예신보사 발전」—

泰西文化무근빛이
西便하늘로밝어오네
文章世界이루고져
藝術雜誌싱겨도다
新羊島에우리青年
報世新報受讀¹⁷⁾세

— 무경생, 「축」—

‘祝泰西文藝新報社發展’과 ‘祝’은 다같이 同誌 제 13호의 「독주의 소리」란

15) <태서문예신보> 제10호, 제7면, 1918.12.7.

16) <태서문예신보> 제13호, 제9면, 1919.1.1.

17) <태서문예신보> 제13호, 제9면, 1919.1.1.

에 실린 것으로서 시 형식을 빌어 「태서문에신보」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축태서문에신보사발전’은 3·3·5조로 된 3음보격이며 각 연은 4행씩으로 3절까지 부르도록 의도된 노래가사인듯 하다. 음수율에 강하게 집착한 결과 ‘우리의시움이 이제로부터’ 등의 어색한 표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진성의 ‘새겨울’은 同誌 제16호에 실린 것으로서 전체가 4연으로 되어 있고 후렴까지 달린 노래체이다. 개성음고생의 ‘怠學生!’은 제16호 동서시문집란에 실린 것인데 詩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토막의 단상을 시 형태로 적어 놓은데 불과하다.

이들 작품들은 음수율에 의존해서 정형성이 우세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개화기의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시의식 수준에 있어서도 아무 생각이나 시형태만 빌리면 된다는 차원에 있고 한 편으로는 강하게 노래를 의식하고 있다. 심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점은 개화기시가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지도자적 위치에서 민중을 계도하고자 하는 교술성은 어느 정도 거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은 개화기시가에서 근대시로 이행해가는 초기단계의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화기시가와 근접해 있지만 교술성의 거세라는 측면에서는 나뉠대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Ⅲ - 2. 해몽의 改作詩 「新春香歌」의 경우

本誌 1호와 2호에는 유행가곡부란이 있고 여기에 해몽 장두철의 ‘新春香歌’가 실려 있다. 1호에는 奇遇의 卷, 2호에는 想思의 卷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만 - 화난 방창하고 입무성흔데
계곡간에 흘러가난 맑은시니물
공 - 산의 적막함을 새이치고서
수물 속의 잠든시를 놀넌난고노

외고리난 지저귀고 재미난나난데

유림간에 횃날리난 긴 초마자락
 봄동산에 춤을추난 누비와갓치
 늣혔다가 늣졌다가 어엿분두발노¹⁸⁾

— 「奇遇의 卷」1.2연 —

눈물쏟여 리별한지 우금삼지에
 쳐서쫓차 쓴어지니 나어이하나
 우리넌은 무심햐야 날이젓난가
 도옹척을 원망햐고 불사자사라

사양사로 소사논병 골수에김흐니
 영지선초 쓸터업고 빅약이 무효라
 가삼속에 이눈불이 간장을 살으고
 쓴침업논 님의심각 가심을 어인다¹⁹⁾

— 「相思의 卷」1.2연 —

이 작품은 춘향전을 압축하여 개작한 것이다. 제1호의 奇遇의 卷은 전체가 6연으로 이도령과 춘향이 만나서 사랑을 하기까지, 제2호의 相思의 卷에는 이별에서 춘향이 옥에 갇히기까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은 사건의 전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건 자체는 압축된 상태에서 서정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 작품이 게재된 유행가곡부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보에난 저 티서에 유명훈 시와 노린만 여러분썩 소기할썩 아니라, 근본 우리에게 잇든것을 곳치인것이라든지, 시로 지인 것으로, 유행되난중에, 아름다운 것이 잇스면 선택햐야 기적할터이올시다.²⁰⁾

따라서 이 란의 설치목적으로 본다면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는 창간 정신

18) <태서문예신보> 제1호, 제7면, 1918.9.26.

19) <태서문예신보> 제2호, 제7면, 1918.10.13.

20) <태서문예신보> 제1호, 제7면, 1918.9.26.

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²¹⁾이라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째는 아직 도 시를 시로써 인식하지 못하고 내용이 어땠든 적당히 운율을 밟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율인식에 있어서도 정형시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각연은 4행씩으로 고정되어 있고 각 행은 4.4.5조의 음수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서 ‘단 - 화난’, ‘공 - 산의’와 같이 자수가 적은 것은 억지로 늘어 읽기를 강요한 것이라든지 ‘재비난나난데’, ‘어엿두발노’, ‘골수에깁흐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자가 넘는 부분은 축급하게 줄여 읽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본지에서 주간을 맡고 있었던 해몽의 경우에도 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영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비단 해몽에게서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시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당대의 시인들은 장르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구의 각 장르를 무차별적으로 모방하고 시험했던 것이다.²²⁾

이 작품은 <기우의 권>과 <상사의 권>의 진행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3~4회까지는 계속될 예정이었던 것 같으나 2호에서 중단되어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필자가 주간겸 편집인이면서도 연재가 중단된 점은 신춘향가류의 작품은 이 시대에도 이미 거점을 잃었기 때문에 게재의 필요성이 줄었고 따라서 유행가곡부라는 란 자체가 없어진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굳이 몇 가지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행마다 한자성구가 끼여 있어서 구태를 완전히 벗지는 못 했지만 ‘비교적 평이한 새 말들로 이루어져’²³⁾ 있고 서구문학을 소개하면서도 우리의 근본을 의식하고 기왕의 장르를 새로운 장르로 개작하고자 한 점, 춘향전을 개작하면서도

21) 강남주, 수용의 시론 p.128.

22) 줄고, 「안서시의 경직성에 관한 일고찰」, 영남어문학회, 영남어문학 제13집, 1986.9.

「한국근대산문시의 모색과 갈등」, 상지대학 논문집, 제10집, 1989.9, 참조.

23) 김용직, 「태서문에신보연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집, 1967, p.63.

그 내용이 스토리전개에 치중하지 않고 서정성에 주안점을 둔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후 해몽은 산문시라는 이름으로 창작시를 발표하고 있다.

어쨌든 이 신춘향가는 근대시로 나아가는 이행기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일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Ⅲ - 3. 身邊詩의 詩史的 位相

「태서문예신보」에는 해몽, 최영택, 백대진 등에 의해서 새로운 성격의 작품들이 모색된다. 이 작품들은 자기의 신변에 관한 체험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일군의 작품들을 신변시로 칭하고자 한다.

신변시란 주로 자기신변에 관한 체험에서 쓰여진 시라고 할 때 신변소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과 切斷해서 심리라는 단 내부의 세계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작가는 현실과 분리해서 자기 개인의 身邊事에 한하여 私小説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 때에 유행한 심리주의 소설과 신변소설과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훨씬 거리가 가까웠던 것이다. ……심리문학과 신변문학은 결코 相容될 수 없는 단 세계의 문학이 아니다. ……당시의 모든 작품은 심리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신변적인 私事의 세계였다. 그가 주로 취재해 간 세계는 어머니나 아내나 아들을 상대로 한 家庭事이거나 혹은 친우와의 交友錄, 酒朋의 이야기 등이었다.²⁴⁾

위의 예문은 백철이 한국근대소설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의한 것이긴 하나 신변시에 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소설사에 있어서 신변소설은 '일차적으로 당대 지식인들의 역사의식의 결핍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²⁵⁾고 할 때 이는 곧 세계를 보는 작가의 시선이 사회적인 데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24)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p.518.

25) 조진기, 한국현대소설연구, 학문사, 1984, p.348.

이는 역사의식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내부로 더욱 침잠하는 심리주의 소설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신변소설은 객관의 세계에서 주관의 세계로, 외면세계에서 내면세계로, 현실세계에서 관념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하겠다.

서정시를 주관의 표출이라고 할 때 모든 서정시는 개적 경험의 범주에 있으나 신변시의 경우 엄격히 주관적 정서표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시선이 사회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의 시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적, 교술적인 개화기의 시가에서 서정적, 주관적 세계의 근대시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육당과 춘원을 위시한 공리주의 문학에서 안서나 상아탑으로 대표되는 무상성의 것으로, 개화기시가의 현실우위적 성격에서 근대시의 관념우위의 성격으로, 객관지향의 세계에서 주관지향의 세계로 이행되는 중간지점에 이들 신변시는 위치하는 것이다.

신변시를 쓴 작가들은 「태서문예신보」에 있어서 소위 중진급에 해당하는 백대진, 해몽, 최영택 등이며 작품으로는 백대진의 '늪웃춤', '어진 안희', 해몽의 '외 - 외 - 이다지도', '우리아버지의 선물', 최영택의 '누이의 악원' 등이다.

정한모는 이들의 작품이 서술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口話體의 서술 형식인 이러한 詩들을 읽으면서 한편으론 아직도 詩에 대한 自覺이나 표현이 素朴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崔永澤, 白大鎮, 海夢의 세 사람이 다 같이 공통된 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각과 표현의 未熟으로만 돌려 버릴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²⁶⁾

라고 언급하면서 '혹 이들은 英美의 詩중 「譯詩」(narrative poetry) 같은 것에 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²⁷⁾고 추정하고 있다.

당신의 병이,

26)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82. p.257.

27) 정한모, 앞의 책, 같은 페이지.

비록 골슈에 드렸으나,
더히당화가,
화 - 리씩 붉어지면,
나을 - 줄 아렸든 바…….

△ △

웃지ହି
황국단풍의시절이 다지나도록,
아모 차도 업시,
더욱 더히여 가노?

△ △

실낱갓치파리히가는 당신의 모양이,
눈에 띄울찌마다,
압혀, 신음하논 당신의 목소리가,
귀에 부티 - 칠찌마다,
나눈우러,
긴, 넓은힝쥬치마를
모조리 적시었네.²⁸⁾

- 백대진, 「어진안히」전 7연 중 1~3연

오라버니 々々々々 살피주세요
계집이란 자라며는 시집을가셔
남편에게 승순하며 시부모봉양
그리하야 자식낳코 사라가는게
인성의 원리 원칙된다흠닛가?

저도 임의계집팔자 되쌔스잇가
여기디훈 의무라셔 업셔될가요
멀지안어 이문데가 닥쳐올겐디
엇전지몐서리가 작고쳐져요.²⁹⁾

28) <태서문예신보>, 제 10호, 제6면, 1918.12.7.

29) <태서문예신보>, 제10호, 제6면, 1918.12.7.

— 최영택, 「누이의 위원」 전 5연중 1,2연 —

아들아네가 너무름을 썬난지가
 오늘 꼭 십칠년이 아니든냐
 나는 그썬에 너를 일코
 가진고초를 다격으며 차져보았스나
 인히보지를 못했앗고
 실성까지 했앗다가
 엇지엇지했야
 다시성훈몸이되야 가지고
 부평의신세, 난봉의 팔자로 이곳에 일으러
 팔년동안이나 별악운을 다격더니³⁰⁾

— 최영택, 「아들에게」 49행중 10행 —

지각업서,
 우습사리 되였고,
 짜리, 아버지의 기록 하신 일흠까지,
 더럽혔습니다.

☆ ☆
 아버지 썬서늘 —
 저썬문에,
 몸편히 주무신적도 업스섯고,
 맛있게, 잠스신썬도 업스섯지요.

☆ ☆
 오히려, 지금에도,
 악마의 창긔흔고향에서,
 굶어진등을, 간신, 간신히 퍼가시면서,
 사시려고만 하시지요.

☆ ☆
 아버지여 — 저는요?

30) <태서문에신보>, 제12호, 제4면, 1918.12.25.

충효를 겸전헌,
아모의 후예임을 압니다.
아모의 후예로서,
불초의 몸됨을 심가홀췌에,
눈물의 온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 ☆

저는요?
더럽힌 아버지의 일흠과,
썩러터린 문호를,
다시금, 셋뿔하게,
다시금, 붓드러올니라고,
멀니, 고향을 향히
허물만흔 과거를, 뉘웃치었습니다.

☆ ☆

아버지여, 바라옵느니 —
만수무강하옵소서.³¹⁾

— 백대진, 「뉘웃춤」전문

아버지 이제는 어데계십니까
높고 좁흔 그 구름우에
높고 넓은 그 궁전에서
아모것도 모르논 이주식을
넘너하시논 눈으로 보호하시겠지요?

☆ ☆

아춤에 글방에 갈췌이려는
허리를 굽히시면서 저가는 뒤를 바라보시고
저녁에 다녀와서 「아버지」하고 습주지를 띄리려는
변々히 쓰지도못흔 그 글씨를
열심으로 보시고 깃버하시었지요?
네 — 네 — 그스랑을 — 쓰거운 그스랑을
아모러니 잇겿서요?³²⁾

31) <태서문예신보>, 제4호, 제7면, 1918.10.26.

- 해몽, 「우리아버지의 선물」 전 7연 중 1,2연 -

이들의 시는 자기들의 신변에 관한 것을 직서하고 있다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이 시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간혹 이 작품들에 대해 '산문시'라고 명기하고 있어서 단적으로 장르의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고³²⁾ 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결과 긴장감이 없고 서술로만 일관하는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육당의 시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작품들은 모두 자유시의 모습을 띠고 있고 언어가 구어체로서 많이 순화되어 있으며 적어도 교술성은 거세되어 있어서 개화기시사에서 근대시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한모교수가 '자각과 표현의 미숙으로만 돌려 버릴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 점은 이들의 시가 서구의 서술시³³⁾에 영향이었다는 것보다는 바로 한국근대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문학에 있어서 주관과 객관, 관념적 이상과 현실은 부단히 교체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며 한국근대시의 주된 경향이 관념지향의 극단화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신변시들은 개화기시사에서 근대시로 이행되는 과도기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질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이 신변시들은 근대시로 가는 이행기에 있어서 일정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백대진이나 해몽, 최영택 등이 차지하는 「태서문예신보」에 있어서의 중견급 위치와 擬似詩에서 近代詩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신변시가 차지하는 위상은 이들의 시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닐 것이라는 확증을 주는 것이다. 하나의 문학적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때 개화기시사와 근대시 사이에는 이들의 신변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

32) <태서문예신보>, 제6호, 제7면, 1918.11.9.

33) 정한모, 앞의 책.

참고, 「한국근대 산문시의 모색과 갈등」, 참조.

34) narrative poetry를 김종길은 「說話詩」, 김우창은 「이야기 시」, 오세영은 「서술시」, 정한모는 「담시」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서술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고 보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Ⅲ - 4. 李一과 吟孤生의 경우

신변시까지 이어졌던 주관에로의 시선이동이 안서와 상아탑에게서 최종적인 결실을 보았다고 한다면 안서와 상아탑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거기에 상당히 근접한 작품들도 있다. 본지에 수록된 李一의 세 작품 중 '해안의 고독'과 三田生의 '멀리간 벗에게', 개성 吟孤生의 '쓰어라'는 형태나 내용면에서 보아 근대시 직전의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해는水平線아리 썩러지고
西便 하늘엔眞紅이 물드러난대
신선한바람은바다우로 부러와
나를지내고다시뒤로멀니간다. (제1연)

自然은黃昏에 싸여가고
水平線은眼界로갓가히오는데
머리우에잇난水晶갓흔별달은
光明을漸々強하게 내인다. (제3연)

孤獨한海岸에물결리난
一刻또一刻에놓하가고
내가슴에치난生命의鼓動은
바람에불니어멀리가렷다. (제10연)

雜踏騷動은지내간숨이요
結晶한내몸이여괴섯난대
눈물에저준過去の若痛은
비웃난눈으로나를본다. (제11연)

江山의美난여기에웃치고
悲哀의極은내가웃인가,

若痛과悲哀도다지내가면
그것덜똥엔 무엇이잇스랴. (제12연)

過去의生活을돌너보고
將來의希望을덜너본後
一步二步뒤로가니
물결의소리난떨어간다. (제15연)

눈에빛친눈물의이슬은
바람에흔들여쳐러진후
海岸의階獸이내몸을싸고
머리우에별덜이빛을쏜이다.³⁵⁾ (제16연)

— 이일, 「해안의 고독」—

이일의 '해안의 고독'은 전체가 18연으로 된 장시로 同誌 7호 동서시문집란에 게재된 것이다. 각 연은 4행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일은 다른 작품들도 4행씩으로 쓰고 있어서 4행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각 연이 4행씩으로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행 자체는 정형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내적 운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념이 용해되지 않고 있어서 언어의 해조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또 전체 18연이 구조적으로 완결되어 있지도 못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위에서 지적된 몇 가지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해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개적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서나 상아탑의 시가 개적 정서를 용해시켜 표현하고 있다고 할 때 이일의 '해안의 고독'은 신변사에서 보여준 個我的 인식이 더욱 철저해진 반면 감정이 용해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근대시에는 미흡하다고 평가

35) <태서문예신보> 제7호, 제6면, 1918.11.16.

36) 4행시는 육당이 新國風이라고 하여 시도한 것이다. 그는 <소년>지와 <청춘>지에 이르기까지 4행시를 지속적으로 창작하였다고 하며 그 동기로는 '전통시형의 답습, 서구 4행시의 영향, 자신의 改新의욕'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4행시는 춘원에 의해 계승되고 1920년대와 1930년대까지 유행한 것이었다. 육당과 춘원의 4행시에 관해서는 김영철, 앞의 책, pp.171~181 참조.

특히 30년대 박용철의 4행시에 관한 것은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정음사, 1896, 참조.

할 수 있다.

일년중적막한겨울에
 마른가지지니가는바람
 씨러져싸엿든넙사귀흔드네
 청산에불으던백국이
 록수에날으던갈마귀
 어디로다갔는지
 찬바람저녁안기희미흔더
 헛된싸마귀소리뿐인가³⁷⁾

— 三田生, 멀리간 벗에게 4연중 1연 —

이 작품은 三田生의 잠문 ‘멀리간 벗에게’ 후반에 제목없이 게재된 것이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촉각적인 이미지의 교직은 상당히 밀도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있고 또한 청산과 록수, 불던과 날던, 뼈꾸기와 까마귀 등이 병치(juxtapose)는 詩의 멋을 훨씬 높여주고 있어³⁸⁾ 기법면에 있어서 진일 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근대시의 관념지향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관심이 가는 작품은 開城吟孤生의 ‘쓰어라!’이다.

쓰어라! 월신々々
 물우의로 空氣우의로
 고기의부레로 새의날애로
 월신々々 쓰어라!
 ○ ○
 쓰어라월신々々
 자옥한티술에
 파뭇치지말고,

37) <태서문예신보>, 제14호, 제7면, 1919.1.13.

38) 강남주, 앞의 책, p.133.

다씩어 惡臭나는데
네코를 박지말고,

○ ○

월신々々쓰어서
淸淨, 新仙, 艷美,
自由, 快樂한
저기 저우의로
고기의 부레로
새의날애로.³⁹⁾

— 개성음고생, 「쓰어라!」전문 —

개성 음고생은 이 외에 ‘怠學生!’을 발표해서 그 시인식 수준을 의심케 하지만 ‘쓰어라!’의 경우 그 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표현에 있어서는 쓸데 없는 것들이 중첩되고 세련되어 있지 못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당시의 일반독자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관념세계의 이분법 위에서 현실을 티끌로, 씹어서 악취나는 곳으로 인식하고 淸淨, 新仙, 艷美하고 자유로우며 쾌락이 있는 이상세계, 관념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현실을 속악한 것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관념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20년대 한국시의 주된 경향이라고 할 때⁴⁰⁾ 이 작품은 이미 현실과의 괴리, 관념지향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시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왜 부정되어야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지향되어야 할 세계가 淸淨, 新仙, 艷美, 自由, 快樂한 곳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39) <태서문예신보>, 제16호, 제7면, 1919.2.17.

40)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김철, 「1920년대 동인문학의 전개와 그 역사적 성격」,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창간호, 1987.7. 참조.

이들의 시는 형태면이나 기법면, 시에 대한 의식 등이 안서나 상아탑에게
는 미치지 못 하지만 시가 개인의 정서표출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신변시보다 더욱 내적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근대시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V. 결 론

「태서문예신보」가 한국문학사에 끼친 공적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 주간지
는 해외문학, 특히 시와 시론에 있어서 상징주의를 주로 소개하여 명실공히
한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데 공헌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안서와 상아
탑의 작품에서 근대시의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태서문예신보」에 실린 창작시 중 무명시인들의 작품을 대상
으로 근대시로 가는 이행기의 시문학 양상을 살펴보았다.

무명시인들의 작품은 同誌 10호에서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9호부터
'작품첨삭부'란을 개시한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결국 후반부로 가면서 독자들
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 신문은 간행되었으며 거기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여진다.

한국시상에서 개화기시에서 근대시로 이행되는 한 국면이 현실에서 관
념으로, 사회성에서 개인성으로,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이라고 할 때 「태서문예신보」의 무명시인들의 작품은 그 과도기적 성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래체의 의사지도 비록 시의 인식에는 미치
지 못 하지만 개화기의 대사회적인 교술성은 거세되어 있으며 특히 신변시의
경우 시선의 이동이 주관으로 이행되는 중간지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변시와 안서나 상아탑의 근대시 중간지점에는 이일의 '해변의 고
독'과 음고생의 '뜨어라!'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이 근대시로 가는 마지막
단계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뜨어라'는 한국근대시의 관념지향의 징후
를 이미 보여줌으로써 시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들의 작품은 많은 시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국근대시사
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행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겠다.
결국 안서나 상아탑의 근대시들은 우연이 소산이 아니라 자체의 내적 필연성
과 일정한 시사적 흐름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泰西文藝新報》영인본, 태학사, 1988.
- 강남주, 수용의 시론, 현대문학, 1986.
- _____, 「태서문에신보의 무명시인고」,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2, 1979.
- 김영철, 한국개화기시가의 장르연구, 학문사, 1987.
- 김영직, 「태서문에신보연구」,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제1집, 1967.
- _____,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 김은철, 「먼동틀제연구」, 영남어문학회, 영남어문학 제14집, 1987.8
- _____, 「안서시의 경직성에 관한 일고찰」, 영남어문학회, 영남어문학 제13집, 1986.9.
- _____, 「한국근대산문시의 모색과 갈등」,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10집, 1989.9.
- 김 철, 「1920년대 동인문학의 전개와 그 역사적 성격」,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창간호, 1987.7.
-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언급, 정음사, 1986.
-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 박철희, 한국근대시사연구, 일조각.
- _____, 「한국 근대시와 자기인식」, 서강대, 서강학술논총, 문학편 I, 1988.
-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 조진기, 한국현대소설연구, 학문사, 1984.